고참과 이등병

(마16:21-28)

21.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고참과 이등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실제 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입장을 견지해야 될 우리들에게는 가르쳐주시는 바가 중요하고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

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사실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사실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fact입니다.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은 fact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fact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따위가 믿는다, 안 믿는다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마귀도 알고 사탄이 알아요, 귀신들이 다 압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사실을 다 알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 하는 것에 신앙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마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 똑같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돼요, 입장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할 때에 오늘의 본문말씀대로 말하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받고 죽는다는 것이 로마식민지 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늘 보고 접하는 사건이었는데 꿈에도 나타날까봐 무서워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말이 없었어도 그렇게 고난 받고 죽을 것을 예견할 때에 베드로로서는 당연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입장표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편을 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입장표명을 편을 들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대적하면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고난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편을 듭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의 입장에 선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의 입장에 반대해서 예수님의 편을 든 것인데,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라고 얘기합니다, 편을 들었는데도…
왜 예수님의 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1 대적자인 사탄이라고 하셨을까?
이러한 오류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딴에는 잘 믿는다고 예수님 편이 된다고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의 입장에 서서 대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만의 걱정일까요?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이 고난 받고 죽어야 된다는 십자가사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반대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사건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편을 든다고 드는데 다 사탄처럼 돼버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으로는 아무리 예수님 편을 들려고 해도 편을 들 수가 없고 오히려 사탄 편이 되는 것이 돼버리는 그런 마음자세가 있는데, 그 마음자세가 뭐냐 하면 고참의식의 오류라는 거예요. '고참의식의 오류'
고참의식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편을 든다고 들어도 결국은 사탄과 같은 패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 된다는 거예요.

고참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고참은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고참이라는 말의 뜻의 핵심은 '먼저 와있는 자'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등병은 먼저 와있는 고참들이 있는 세계로 뛰어든 신참내기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많이 배우고 별별 훌륭한 일을 하고, 군대 올 때 자라난 환경, 성격, 습관, 가지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군대 오면 다 바보가 돼요.

어떤 배경에서 자랐건, 어떤 학벌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건 상관없이 군대에 들어오면 획일화 된 규칙 아래서 조직생활을 하면서, 제일 무거운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고참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3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등병들, 신참내기들에게 필요한 행동가짐을 3S라고 표현하는데, Sound, Speed, Sense를 말합니다.
Sound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야! 김철수' 하면 '예! 이병 김 철 수!' 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요.
그리고 고참이 '야! 김철수 가서 라면 사와!' 하고 작게 말해도 '예!'하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고참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접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음은 Speed, 하여간 무엇이든지 규칙대로 움직이고 정규적인 행사든 고참이 시키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빠릿빠릿해야 돼요, 느려 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Sense, 늘 고참의 눈치를 봐야 돼요.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자기가 느껴서는 안돼요, 터진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그 일을 보지 않고 그 일을 느끼는 고참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게 Sense예요, 눈치를 봐야 되는 것.

반면에 고참은 Sound가 없어집니다.
소위 계급을 단 신참내기 장교가 소대장으로 와서 부르면 '예!' 하고 말아요.
중대장인 중위가 부르면 "예, 병장 김철수" '병'자만 크고 그 다음은 작아집니다, 소리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스피드 없어요, 느릿느릿.
기상나팔이 울리면 다들 일어나서 옷을 입고 점호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이불 개고 옷 입고 서있을 때까지도 뭉개고 있다가 일어나는데도 이상하게 병장들은 그렇게 느려 터진데도 점호시간에 늦는 법이 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법이 없습니다.
제대를 앞둔 병장들이 이등병들에게는 다 아버지 같고 삼촌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하죠?

나는 많이 배워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군대에 왔어요, 그런데 고참은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런데도 고참이 와서 '힘들지? 다 그런 거야, 열심히 해!' 그러면 고참이 돌아설 때 눈물이 주욱 납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래도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군대사회에서 고참과 이등병의 관계입니다.
먼저 와서 오랜 기간을 먼저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내가 이등병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삶의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이 고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고참이라는 의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예수님의 반대 입장인 사탄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고참의식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꾸중을 하신 뒤에,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 자체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길에서 앞서 가는 분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따라가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고참의식이 잘못 되었을 때.
따라가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순간에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냐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편을 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따라가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편을 든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따라가지 않으면서 편을 든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편을 들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고참의식이 없고 그래서 따라가기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안 되는 이유는 고참의식이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고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참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 편을 드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예수님보고 내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한다'고 얘기합니다, 붙든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억압한다는 뜻입니다.
'안돼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억압하면서 항변한다는 것은 책망한다는 뜻으로 영어로 rebuke, 막 나무란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고참이 돼버린 상태에서 예수님보고 자기편을 들라는 것이고 자기를 따르라는 얘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왜 힘들어요?
고참의식이 잘못 됐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적용해봅니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문제가 된 그 상황 안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신참 이등병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먼저 와계셔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이등병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 문제를 느껴서는 안돼요.
내가 그 문제를 먼저 느끼고 그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내가 고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 생긴 문제에 들어간 이등병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문제를 먼저 보고 내가 먼저 느끼면 안 되고, 그 문제를 먼저 알고계시고 문제에 먼저 와계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일이 잘된 거다 못된 거다, 큰일이다, 내가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오면 이제는 예수님 따르기가 끝나버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참이 되어, 내가 느끼고 내가 먼저 와있는 자로 생각하고 먼저 와있는 자로서 판단한 대로 예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야 되는 거죠.

자식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 안에서 나는 이등병 신참내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자식을 먼저 알고 이 상황이 벌어질 것도 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 문제를 먼저 느껴서는 안돼요.
군대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절대로 그 문제를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돼요.
고참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보고(sense), 그 고참의 눈치를 보고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 따르기가 바로 이 고참의식이 잘못 되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와있는 고참의 입장이 돼버리면 안돼요.
고참이 누굽니까?
먼저 느끼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지침내리기예요.
'예수님, 사업이 안 되니 잘되게 해주세요, 아이가 시험을 보니까 지혜를 주시고 …'
다 지침내리기가 돼버려요, 내가 고참이 되니까 예수님 따르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거듭 말씀 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당신의 십자가가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져야 될 십자가가 뭡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다, 뭐다' 하는데, 우리가 순교한다고 해도 그게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졌어야하는 건데 주님이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 개인적으로 보자면 져야 될 필요가 없는 십자가이고, 져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이 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각자가 다 내 십자가를 져서 내가 십자가를 진 대로 용서를 받는다면 주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내가 내 나름대로 따로 십자가를 지는 것의 모델이 될 뿐이 되지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내 십자가로 지고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얼 말하는 겁니까?
모든 사건 앞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이등병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고참으로 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먼저 느끼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목숨이라는 게 단순히 이 육체의 목숨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인격적인 자아를 버려야 하고 잃어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까?
내 인격이라는 게 지금 몸에 묶여있는, 몸에 노예 되어있는 자아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몸에 묶여있는 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고참이 됩니다.
몸을 통해서 접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먼저 느껴버리고 내가 먼저 생각해버리고 내가 먼저 판단해버리고 지침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체에 묶여있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이등병 취급을 한 거예요.
내가 고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자식에게 일이 생겼어요, 공부를 안 하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느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놈이 정말, 비싼 밥 먹여주고 학원비 대주고 이러니까 이놈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느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내가 고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르기는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탄의 입장이 돼버립니다, 예수님께 대적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보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먼저 느끼면 안돼요, 자식이 공부 안 하고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골방으로 들어 가버리세요.
느껴졌잖아요? 느껴진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아이의 공부하지 않는 모습을 느껴서 화가 난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고참으로 오시고 지침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며 이끄실 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완전히 죽는다는 것은 자식이 공부 안 하고 컴퓨터만 한다는 사실이 기분이 나빴다가 그 나쁜 기분에서 해방돼서 자식의 문제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는 상태가 된 뒤에라야 예수님께서 자식의 문제에 대한 고참으로써 그 순간에 필요한 일들을 나로 하게끔 하시기도 하고,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게도 하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컴퓨터 하는 중에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외공부 선생에게 맡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려면 자식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이등병이 되어서 자식문제를 느끼지도 마세요.
먼저 느끼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판단해버리면 내가 고참이 되는 겁니다.
먼저라는 말이 핵심단어예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겉으로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똑같은 그 기적을 꿈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가 기적을 꿈꾼 것은 사람의 일이 됩니다, 똑같은 기적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먼저'가 문제예요, 먼저가.
내가 먼저 이 세상의 일을 느껴버리면 그리고 판단해버리면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이 세상의 일을 하나님이 먼저 느끼시고 하나님이 고참이 되시고 주님이 고참이 되셔서 느끼

시고 판단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이 돼버립니다.
똑같이 장사를 해도 내가 먼저 느끼는 장사의 일이라고 하면 내 일이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느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일 때 나는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참이시니까.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나는 이등병이니까, 대통령이 됐어도 나는 대통령이 아니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고참으로 와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대통령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늙으나 젊으나, 공부를 많이 했건 안했건, 중요한 일을 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먼저 와계신 고참입니다.
나는 절대로 먼저 느끼고 먼저 판단하면 안돼요.
먼저 안 하려면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지금 주어진 상황, 지금 주어진 직책, 지금 주어진 집이 오늘 하루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이등병이고 예수님이 고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십자가를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하면 사탄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내가 고참이 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몸에 묶여있기 때문에 몸이 접하는 대로 내가 마음이 먼저 느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나'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잃어버릴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 십자가에서 버릴 수 있는 거죠, 그 '나'를, 고참이 되려는 죄적이 '나'를.
고참이 되려 하면서 사탄이 됩니다, 이게 독사의 자식이거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거든요.

예수 따릅시다!

예수님이 날 따라서는 안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참이 되셔야 하고 나는 이등병이에요.

모든 직책과 상황에서 나는 오로지 이등병 신참내기라는 것을 십자가를 붙잡고 몸에 묶인 내가 죽음으로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참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와계신 예수님께서 다 앞서서 해결해나가실 것이에요.

때로는 고참이 늦게 일어나고 늦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안 움직이시나? 왜 하나님아버지께서 이렇게 안 움직이시나?'

그러나 정시에 언제나 고참은 실수 없이 등장합니다.

내 생각이 답답하면 내가 고참이 돼있는 겁니다.

느끼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느끼고, 천국을 느끼고, 예수님을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평강하고 배부르고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가 불평이 일어난다면 오늘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이 상황이 내게 왜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항변하게 되는 겁니다.

걱정 근심 모든 게 다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를 재현시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니, '그리 마옵소서!'

자식이 공부를 안 하니, '그리 마옵소서!'

다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네가 해라!!'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등병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등병이 되어서 감사하면서 고참이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자신 있고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내 조건이 되니까.

예수님이 고참이십니다, 먼저 와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지침을 주님께 내려드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탄의 입장에서 주님께 항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꼴이 뭐냐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항변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제가 고참이 되었기 때문임을 내 마음 깊이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음으로 어떤 상황, 어떤 직위,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이등병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고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